

현안과 과제

- 올해 추석 물가 불안 우려 된다
 - 긴 장마와 빠른 추석이 겹치면서 물가상승 압력 가중

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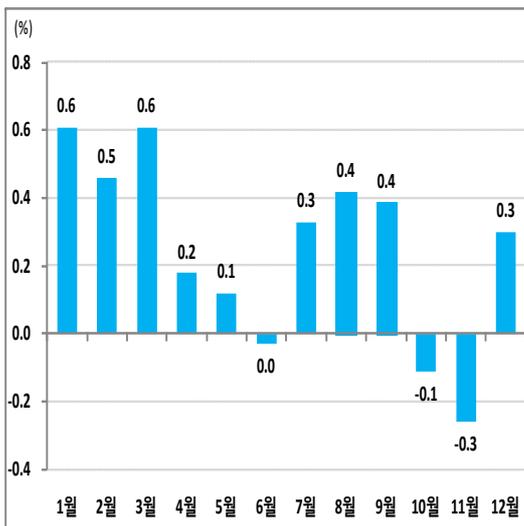
- 최근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,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염, 예년보다 빠른 추석 등으로 물가가 단기간에 불안해질 가능성
 - 국내 물가는 2012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어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
 - 소비자물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1%대에 머무는 등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.5~3.5%를 크게 하회
 -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작년 2월에 1%대로 하락한 이후 2013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1%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
 - 올해 장마는 중부 지방에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한 반면, 남부 지역은 폭염으로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
 - 올해 7월 전국 강수량은 302.0mm로 평년(289.7mm)보다 증가하였고, 장마 기간 역시 49일로 평년의 장마 기간인 32일 보다 보름 이상 길었음
 -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.4도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
 - 한편 남부 지방에서는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예년에 비해 보름정도 빠르게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¹⁾
 - 추석은 대체로 9월 상순에서 10월 상순 사이에 분포하는데, 올해에는 추석이 9월 19일로 작년보다 11일 빠름
 - 최근 추석은 2009년 10월 3일, 2010년 9월 22일, 2011년 9월 11일, 2012년 9월 30일 이었음
- 본 보고서에서는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악화와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

1) 국립수산물과학원

2. 추석 물가 불안

- (제수용품 수요 증가)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은 추석 기간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8월부터 9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
 -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변동을 살펴보면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이 제수용품의 일시적 대량수요와 기상악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음
 -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는 8월과 9월 각각 0.4%로 설과 겨울철 한파, 신학기 등이 겹치는 1~3월과 더불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음
 - 주요 제수용품 관련 물가를 살펴보면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에 물가 상승률이 점차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육류 : 최근 10년간 소고기의 가격은 8월과 9월에 전월보다 평균 0.8%와 2.7%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
 - 어개류 : 고등어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0.8%, 1.2% 오징어는 8월과 9월에 0.7%, 1.4%, 조기는 8월과 9월에 0.8%, 2.8% 오르는 등 어개류의 가격은 추석기간에 크게 상승
 - 채소류 : 배추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48.9%, 16.9%로 급등, 도라지와 고사리 역시 가격이 불안정
 - 과일류 : 사과 가격 상승률은 8월과 9월에 1.1%, 1.9% 배는 8월과 9월에 0.7%, 13.7% 상승

< 최근 1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>



< 최근 10년간 주요 제수용품 물가 상승률 >
(%)

품목	7월	8월	9월	
소비자물가	0.3	0.4	0.4	
육류	쇠고기	-0.2	0.8	2.7
	돼지고기	0.3	-1.1	-2.1
	닭고기	5.6	2.4	-6.4
어개류	고등어	-1.7	0.8	1.2
	오징어	-0.2	0.7	1.4
	조기	0.3	0.8	2.8
채소류	배추	28.7	48.9	16.9
	도라지	0.5	0.3	1.1
	고사리	0.5	0.7	0.8
과실류	사과	0.0	1.1	1.9
	배	0.0	0.7	13.7
	밤	0.0	2.6	-6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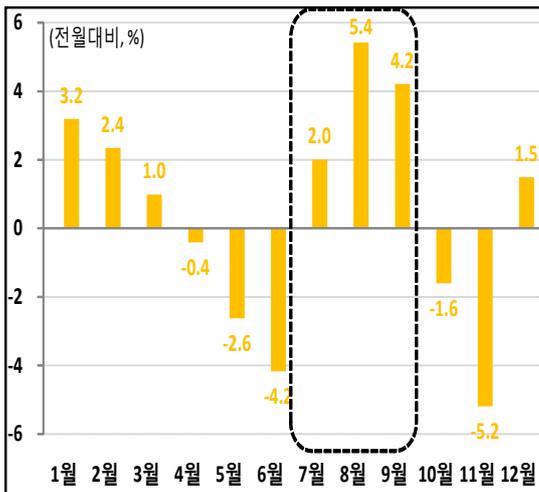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
- 주 1)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대비 상승률을 사용
- 2)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○ (긴 장마) 장마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은 매년 반복 되어 왔으며, 올해 역시 예년보다 긴 장마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

- 올해의 경우 긴 장마의 영향으로 7월 하순부터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여 9월까지 농산물 물가가 크게 불안할 것으로 보임
 - 최근 10년간 농산물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장마 기간²⁾인 6월(-4.2%), 7월(2.0%) 보다 장마 이후인 8월(5.4%)과 9월(4.2%)에 더 큰 폭으로 올랐음
- 특히,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류의 물가 상승이 전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최근 10년간 채소류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8월에 13.3%, 9월에 14.7%로 급등
 - 채소류 중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배추(8월 48.9% 9월 16.9%), 상추(8월 21.9% 9월 23.4%), 시금치(8월 40.6% 9월 31.5%), 무(8월 34.4% 9월 7.4%) 등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

< 최근 10년간 월별 농산물물가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 주 1)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사용
 2)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< 최근 10년간 품목별 농산물물가 >

(단위 : 전월대비, %)

	6월	7월	8월	9월
농산물	-4.2	2.0	5.4	4.2
곡물	0.1	0.0	0.1	0.1
채소	-9.8	6.6	13.3	14.7
과실	-3.9	1.0	3.1	-0.2
기타 농산물	-1.7	-0.7	1.7	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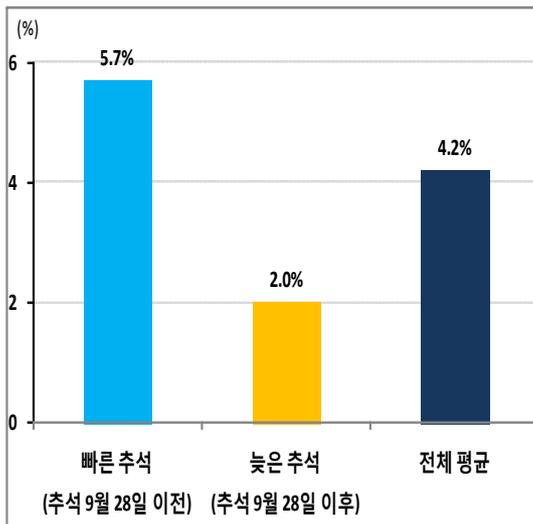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 주 1)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사용
 2)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2)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기간은 중부지방은 6.24~25일 시작되어 7.24~25일 종료, 남부지방은 6.23일 시작되어 7.23~24일 종료

○ (빠른 추석)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일러 제수 품목의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해보다 특히 높음

- 올해 추석은 9월 19일로 예년보다 이르며 계절상 여름에 속함
 - 우리나라의 계절상 여름은 9월 27일(서울 기준)까지인데³⁾, 최근 10년간 (2003~2012년) 올해처럼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하였던 경우는 2003년, 2005년, 2007년, 2008년, 2010년, 2011년 등 6차례임
 - 추석이 계절상 가을에 속하였던 경우는 2004년, 2006년, 2009년, 2012년 등 4차례임
- 추석 제수용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했던 해의 평균이 가을에 속했던 해의 평균 보다 크게 높았음
 - 최근 10년간 추석이 계절상 여름에 속하였던 해의 9월 농산물 물가 상승률의 평균은 5.7%로 추석이 가을에 속하였던 해의 평균인 2.0%보다 3.7%p 높았음
 - 추석이 빠른 기간에 농산물 물가가 불안해지는 원인은 가을이 제철인 사과, 배, 배추 등 주요 제수용품의 공급이 추석의 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

< 추석 시기에 따른 9월 농산물 물가 >



주 : 빠른 추석은 '03년, '05년, '07년, '08년, '10년, '11년의 전월대비 상승률 평균, 늦은 추석은 '04년, '06년, '09년, '12년 평균

< 사과, 배의 생산비율 및 출하시기 >

	품종	생산량	출하시기
사과	후지	68%	10월 하순
	홍로	7.6%	9월 중~하순
	쓰가루	7.2%	8월 하순~9월 상순
배	신고	77%	9월 하순~10월 상순
	원황	6%	9월 중순
	풍수	1.1%	9월 중순

자료 : 농협경제연구소
주 : 2008년 기준

3) 국립기상연구소, 기후변화 이해하기III, 2009.4.

3. 시사점

- 수급, 유통, 보관,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석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

① 수급 측면

-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마련
 - 특히, 배추와 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확대 공급
 - ‘파머스마켓(Farmer’s market)’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.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
-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재해 보험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
 - 생산, 유통, 소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·분석하여 선제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및 예측 기능을 강화
 - 선물 시장 거래를 활성화 하는 한편, 도매시장의 경매 제도를 수의매매 혹은 정가거래 등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한편,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체계 구축

② 유통 측면

- 산지에서 수확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대형화·규격화를 도모하는 등 산지규모화·조직화를 통해 영세한 생산 규모를 보완하여 유통 효율성 증가
 - 또한 신속·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자, 소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
- 반복되는 추석 물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등을 지속 추진
 - 농축수산물 유통의 3대 과제인 높은 유통비용, 큰 가격변동성, 산지-소비자가격 비연동 등 문제 해결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
 - 특히, 산지의 생산 및 출하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경매에서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확대 조성
 - 또한 추석기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, 가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

- 도매상,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함
 - 근본적으로 직거래, 로컬푸드,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통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장 내 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함
 - 유통 단계별 이윤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규제 기능을 정비하는 등 유통업체의 이윤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함

③ 저장 측면

- 농축수산물의 저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온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첨단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
 - 과일이나 채소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비성수기에 물량을 비축함으로써 명절 성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
 - 산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: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)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지에서 직접 가공포장단계를 거쳐 제품 손실률을 감소시키고 물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함

④ 정부 정책 측면

- 추석 기간 공공요금, 서비스가격 등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타 부분으로의 전이효과를 사전에 차단⁴⁾
 -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인상 시점을 적절히 분산하는 한편, 국제 유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국내 기름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

김천구 선임연구원 (ck1009@hri.co.kr, 02-2072-6211)

최성근 선임연구원 (csk01@hri.co.kr, 02-2072-6223)

4) 공공요금 인상은 상품의 원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, 공공요금이 10% 상승하면 생산자물가는 1.85%, 소비자물가는 2.24%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(한국은행, “알기쉬운 경제 지표해설”, 2010년)